

한국에너지공대 3월 개교 준비 착착

전국 최고 경쟁률 신입생 모집

세계적 석학 교수진 49명 임용

캠퍼스 시설 공사 차질없이 순조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이자 공형 특수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올해 3월 개교를 앞두고 캠퍼스 건축, 학생 모집, 교수 채용 등 전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설립 당시부터 개교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는 3월 개교 준비에 막바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첫 신입생 모집에서는 수시 24.1대 1, 정시에선 전국 최고 수준인 95.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입시 돌풍을 일으켰다. 개교 전 인데도 불구하고 타 이공계 특성화대학보다 2~3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제

시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또 연구 역량을 높이고, 에너지 융복합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석학급 교수진과 우수 연구 인력 영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에너지 인공지능(AI), 에너지 신소재 등 에너지 5대 중점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49명의 교수진 임용을 마쳤다. 올해까지 60명, 2025년 편제 완성 시까지 총 100명을 채용해 에너지 선도 대학으로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캠퍼스 시설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건립할 예정이다. 대학원생이 사용할 임대교사 에너지 신기술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준공을 끝냈다. 5000㎡ 규모의 개교 핵심시설은 현재 95%의 공정률을 넘어섰으며, 2월 중 입시승인을 받고 개교 전까지 구축하도록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40만㎡) 조성에도 힘

을 쏟고 있다. 글로벌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함께 모여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 중국 최고의 IC 심장부 '중관촌', 프랑스의 기술허브 '소피아안티폴리스'처럼 에너지 밸리를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완성할 구상이다.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레이저 관련 국제 연구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과 협업체 형성 용역비 15억원을 확보했다. 장기적으로 레이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대 레이저 학부 신설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대는 2050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미래 에너지 산업을 이끌고,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세계 톱10 공과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 일자리창출 평가 최고 등급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평가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질적 개선을 위한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8일 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신산업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 분야에서 역량강화 교육, 구직 상담, 일자리 매칭,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서비스 시스템 운영이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또 일자리 쉼터 도서관 구축,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275명에게 취업을 연계하고, 구인기업 87개

사를 발굴(목표 대비 평균 114%)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에너지 기업 29개사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 컨설팅, 제품 브랜드 홍보, 시제품 제작, 제품 인증 및 특허 획득 등을 지원하고, 150명(목표 대비 176%)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전남의 전략산업인 블루에너지와 연계해 맞춤형 기업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에서 출연한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섬진흥원

신안 병풍도·소악도서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이 지난 4일 신안 병풍도와 기점·소악도에서 '제2차 찾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개최했다. '섬 현장포럼'은 섬 주민, 섬 현장활동가, 섬 전문가와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정책 및 진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섬 정책 담당 부서와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도 불리는 신안 병풍도 기점·소악도에서 진행됐다. 이날 한국섬진흥원 임직원들은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기점·소악도 12사도 순례길을 탐방(산티)하고 김 채취 현장을 방문해 섬 주민들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보육·교육 등 섬에 대한 당면 과제가 수도룩하다"면서 "월 1-2회 찾



아가는 섬 현장포럼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정책 현안을 공유해 소통과 협력관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8일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전국의 섬 육

성, 정책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제 연구기관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 3월 14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는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을 오는 3월 14일까지 5주 동안 접수한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전년도 농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논이모작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기존의 쌀 고정직불금 또는 밭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지다. 논으로 활용하는 농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리·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논이모작 직불금은 신청자에 대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실제 논으로 활용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농지 형상, 기능 유지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도내 2만3000여 농가 등에 227억원을 지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전남도 1인당 연 최대 120만원

전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교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 대상자를 오는 4월 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월 31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또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

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등 4가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청년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바라는 청년은 4월 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4월 중 지원대상자 1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상환 후지급 방식으로 분기마다 개인별 상환금 대출내역을 확인 후 월 최대 1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산림자원연, 산림청 R&D 공모 전국 최다

동백나무 실용화 기술 등

3개 과제 선정...국비 12억 확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청의 2022년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 공모에서 지자체 산림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3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R&D 연구과제는 탄소중립 추진기반 실증기술 개발 분야 1개 과제와 동백·모링가나무 등을 소재로 한 산림과학 기술 실용화지원사업 2개 과제로 총 3개 과제다. 탄소중립 과제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스마트 양묘 시스템을 활용한 최적 목목 생산 체계 연구'다. 3년간 8억8000만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한국산림과학회 교수진, 산림기술사사무소 '호림'과 함께 공동 추진한다.

모링가나무는 다양한 질병에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열대 수종이다. 지금까지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선도적으로 해외 도입 재배 시험을 통해 도내 인가를 육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산림청 과제에 선정됐다. 2억8100만원의 국비로 동시대, 순천반모링가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연구한다.

동백은 그동안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일

가공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방 분해와 주름 개선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유효성분인 갈릭산(Gallic acid)의 함량을 최고 20배 이상 증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활용해 천연 향장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1년간 1억9300만 원의 국비로 ㈜삼성, 조선대 연구팀과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한다.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비 아열대 수목인 모링가와 전남 향토자원인 동백나무는 효능연구를 통해 산업체에 사전 기술이전하는 등 탁월한 준비성을 보여 이번 공모에서 산업화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중앙부처 R&D 공모를 통해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국비 79억원을 지원받아 지역 임업 현안 11개 과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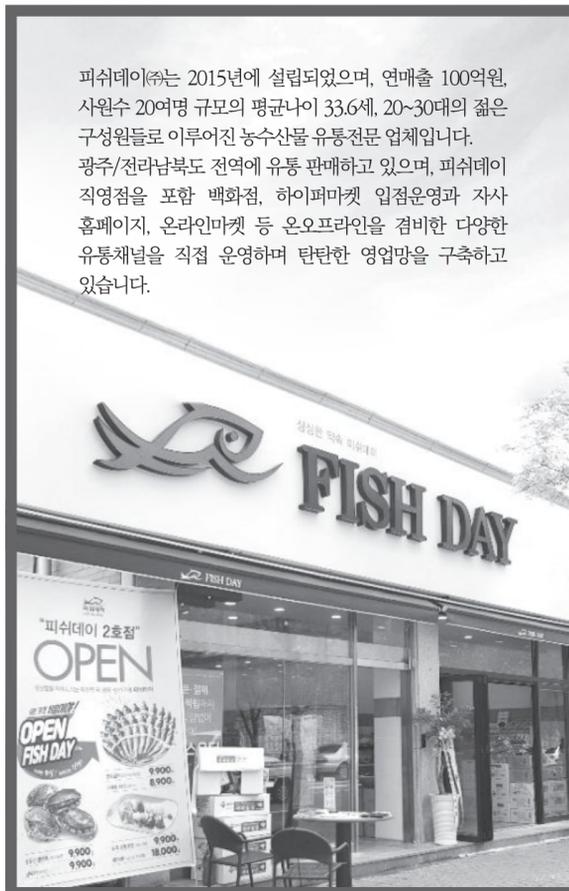
2023년산 김 신제품 종자분양 신청 접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3년산 김 생산을 위해 해풍2호, 햇바디1호, 해모돌1호 등 신제품 종자 분양신청을 오는 11일까지 받는다. 대상지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소유한 어가다. 분양 신청서, 수산종자생산업(김류) 허가증, 신분증을 갖춰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해풍2호(방사무늬김)는 김밭용 김으로 큰 사랑

을 받고 있다. 햇바디1호(잇바디돌김)는 우리나라 고유 양식종으로 기존 잇바디돌김에 비해 생산량이 2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분양했던 해풍1호는 지난해 도내 종자배양 업체인 대양에스씨(주), 명성김종묘수산연구소, 창조수산, 3개소와 통상실시가 완료됐으므로 종자 분양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민간배양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